



전북대학교가 개교 72주년을 맞아 18일 오전 10시 30분 진수당 가인홀에서 개교 기념식을 갖고 더 큰 도약을 다짐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세계로!

전북대 개교 72주년 기념식 거행... 우수 교직원 포상 대학 영문명 변경에 따라 바뀐 론사인 제막식도 진행

“임중도원(任重道遠), 사이후이(死而後已). 임무는 막중하고 가야 할 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역과 함께 세계로 나아갑시다” 전북대학교는 개교 72주년을 맞아 18일 오전 10시 30분 진수당 가인홀에서 개교 기념식을 갖고 더 큰 도약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교수와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을 비롯해 대학발전에 기여한 교직원에게 주는 '동행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은 전북대 30년 숙원이었던 약학대학 유치에 기여한 이민정 직원(약학대

학설치추진단)과 시민과 호흡하는 캠퍼스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조정갑이 수상했다. 이 밖에도 혁신과 경쟁력, 서비스 분야에서 각각 황순수 직원(총무과), 남윤희 팀장(공대), 구진희 팀장(중앙도서관) 등이 금상을 받는 등 2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행사 이후에는 전북대 영문명 변경에 따라 JBNU로 새로 바뀐 정문 앞 론사인 조형물 제막식도 진행됐다.

전북대 영문명 변경은 전북과 전주 등 지역 표기법과 일치시켜 지역 대표대학으로서 지역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김동원 총장은 “지역 대표대학으로서 지역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영문명을 바꿨다”며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은 이제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임무는 막중하고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역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유학생들의 해외취업길 '활짝'

전주비전대, 대만 글로벌기업 9-CIRCLE·COSDA와 협약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18일 대회의실에서 대만의 글로벌 기업 (주)9-CIRCLE 및 (주)COSDA와 유학생들의 해외취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우수 해외 기업과 교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주비전대학교에 재학중인 미얀마, 중국 등 외국인 학생을 위한 현지취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주비전대학에는 10개국 215명의 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날 협약으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취업의 문이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협약을 체결한 (주)9-CIRCLE 및 (주)COSDA는 유럽, 아시아 등에 자

차 공구 및 진단장비 등을 개발, 제작 수출하고 있는 대만기업으로 국내에 (주)9-CIRCLE KOREA(충북 청주 소재)를 운영하고 있다. (주)9-CIRCLE 및 (주)COSDA는 매년 1200만원의 장학금과 학생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기자재를 기부하고 주문식 교육 및 현장실습을 통해 재학 유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홍순직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학의 글로벌 교육과 해외 취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육성과 우리 학생들의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사고력 키우는 학생통계발표회 가져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통계 읽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전북 학생통계발표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올해 4번 째로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수집·분석·해석하는 활동을 통해 수학탐구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통계포스터의 제작을 통해 실생활 속에서 수학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익혀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발적 학습동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7월 24~26에는 '2019 전북 학생통계발표회' 참가 신청한 초·중·고 학생 중 약 200여 명이 전주근영

여고에서 열린 통계캠프에 참여했으며, 예선심사를 거친 초·중·고 각 6팀이 지난 19일 KBS전주방송총국에서 본선 통계발표회를 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일상 곳곳에서 사용되는 통계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하고 데이터를 읽는 훈련을 축적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계포스터 제작 및 발표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오늘은 내가 군산시민건강지킴이”

호원대, 평생학습 한마당 참여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군산시가 주최하는 2019 군산시 평생학습한마당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11회째로 평생학습 한마당은 군산시민교육센터가 주관해 매년 10월 개최되는 군산의 대표 시민축제 행사 중 하나이다. 올해는 '2019 시민이 함께하는 군산-평생학습의 바다로'라는 슬로건으로 17개 팀이 꾸려가는 평생학습인 예술제와 각종 축하무대 그리고 군산시 소재 38개 평생학습단체의 학습결과물 전시, 학습마당·참여마당·나눔마당·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가 기획



호원대가 18일부터 19일까지 군산시가 주최하는 평생학습한마당 행사에 참여했다.

돼 19일까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주변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호원대학교가 교육부 자율개선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시행하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호원대 간호학과 교수를 비롯한 재학생들이 참여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시민건강지킴이 부스를 운영했다. 호원대 간호학과 부스에서는 혈압측정, 혈당측정, 인바디측정, 아로마 테라피 등 다양한 군산시민의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19일에는 올해 신설된 화과인 호원대 K-POP학과의 맨스팀의 화려한 축하공연과, 성인학습 요가 동아리인 파랑새 스토리의 고난도 동작 시연과 생활 요가공연이 진행됐다. 이민중 대학혁신지원사업본부장(법경철학과 교수)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평생학습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공

헌활동이 활성화 되고, 대학이 지역과 협력하고,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실험실특화형 기술창업 아카데미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17~18일 1박 2일 간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제2차 Tech. Start-up Academy'라는 이름으로 실험실특화형 기술창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유망한 예비 창업실험실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험실 창업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Tech. Start-up Academy'는 창업에 관심 있는 실험실 구성원들에게 폭넓은 창업관련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연속형 집중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2차 아카데미에서는 '기술에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4명의 전문가를 초청해 가치사슬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비롯해 기술창업의 새로운 시작과 혁신,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전략, 창업가를

위한 리더십 등을 주제로 한 특강과 기술창업에 고려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1:1 전문가 멘토링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추후 대학원생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아카데미와 멘토링 지원, 각종 포럼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험실 기술창업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각종 투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창업실험실의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실험실이 논문 위주의 승용적 연구에서 벗어나 사업화를 위한 적극적 기술개발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아낌없는 지원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